

책임 있는 광물 공개 실사 보고서

1. 회사정보

회사명	엘티메탈 주식회사
CID	CID000689
주소	인천 광역서 서구 건지로 98-13
3TG물질	Au (금)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2025.01.02~2025.12.31
보고서 작성날짜	2026. 03. 30
보고서 작성 책임자	송경웅

2. RMAP 평가요약

(주) 엘티메탈은 한국의 정련 및 제련소가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책임감 있게 공급 할 것을 속하며, 아래와 같이 RMAP 평가를 실시 합니다.

최종 감사 일자	2023. 08. 25.
감사기간	2020.07.01 ~ 2023.06.30
감사회사	UL
최신 감사 요약 보고서 링크	http://www.ltmatal.co.kr/kr/4_operation/sub1_1_1.html

3. 회사 공급망 정책

회사 고위험 및 분쟁지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장 집단에 자금 및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타 심각한 인권탄압과 관련된 분쟁광물의 이용을 방지하기위해서 공급망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회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실사지침 제 3 판과 부합 하도록 할 것이며 당사의 공급망 정책에서 OECD 지침 부속서II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을 다루며, 지리적 범위는 전세계를 포함한다.

이 정책은 회사 경영진에 의해 검토, 승인 및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공급 업체, 고객 및 직원과 같은 관련 이해 관계자와 공유되며 회사 웹 사이트에 선언됩니다. 또한 아래의 Annex II 위험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급망 정책은 당사 홈페이지(www.ltmatal.co.kr)에 공개하여 고객, 이해당사자 등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기업관리시스템

가. 관리구조

회사는 공급망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다음사항을 통해 실사에 대한 내부절차 수립 했습니다.

-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실사 프로그램 및 위험관리 설계와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관련부서의 작업을 조정할 실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임명하고, 각부서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실사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위험신호 및 식별된 잠재적 위험을 보고합니다
- 회수영업팀은 공급망내 모든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정제성을 확립하고 회수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며 의심스러운 거래패턴을 식별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급업체의 정보를 수집할 책임 있습니다.
- 품질경영팀은 실사관리 시스템에 관한 주요정보를 다루는 관련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행하고 교육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실사시스템 유효성을 확인하고 기대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번 실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시스템 개선이 되도록 합니다
- 회수담당 임원은 공급망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된 식별된 위험에 대해 대등, 조사, 실시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후 합의적인 조치를 실행하여 공급망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 공급망 업체 평가 및 Au 구매 신규업체 현장실사 검토 (25.04.12)
- ▶ 공급망 업체 평가 결과 및 KYC 수신결과 검토 (2026.03.25)
- 회사는 1년에 1회 실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한 모든 관련부서의 주요인력에게 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RBA에서 제공하는 E-Learning 교육을 활용하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요구사항을 습득하고 이를 사내 시스템에 적용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내교육 실시결과

- 공급망 관리 시스템 관련부서 대상 교육진행 (2025.05.16)

- 회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운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 인권 및 노동정책 : 홈페이지 (www.ltmatal.co.kr/kr/4_operation/sub1_2_1.html)

나. 내부 통제 시스템

- 1) 엘티메탈은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 및 RMAP에 부합하는 실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급망 정책 및 소싱요구사항을 회사 공급망 내 식별된 모든 공급업체에 전달하였고 공급업체로부터 회사의 공급망 정책준수 동의를 얻기 위해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충을 처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마련 했으며 회사 홈페이지 (www.ltmatal.co.kr/kr/), 이메일, 전화 RMI 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로부터 고충이 접수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 및 조사하며 필요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RMI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rmap/grievance-mechanism/>)

라. 기록 관리시스템

엘티메탈은 실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기록을 최소 5년동안 유지관리하고 적절히 사용 및 보관 합니다

5. 위험 식별

- 1) 엘티메탈은 공급망에서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확고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급망 정책에서 위험을 참고하여 분쟁 및 고위험지역 (CAHRA: Conflict-Affected & High- Risk Areas)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 절차에는 사용된 자원,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뿐 아니라 검토 주기가 포함 됩니다. 회사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 (CAHRA: Conflict-Affected & High- Risk Areas) 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원들을 이용합니다

- RMI Risk Map (<https://analyze.eiq.ai/rba>)

충돌, 보안 부패 및 인권등을 고려한 국가위험수준을 검토함 (하위국가 위험도확인)

- CAHRAs List Under EU Regulation (<https://www.cahraslist.net/>)

분쟁 및 고위험지역 리스트를 참고하여 선정 반영함

상기 자원을 토대로 2026년 3월 공급업체 국가들에 (호주, 스위스, 일본 한국) 대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언급된 국가들 중에서 고위험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은 없었으며 평가한 국가들은 모두 회사의 기준에 충족했습니다.

▶ CAHRAs Report 검토 보고서 작성후 경영진 보고완료 (26.03.28)

- 2) OECD 공급망 실사 지침 부속서 표내 분쟁 및 고위험지역 으로부터 책임있는 글로벌 광물 공급을 위한 공급망 정책 모델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광물의 수출 및 추출 거래, 처리와 관련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위해 회사는 보고기간 동안 확인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당사 공급망 정책과 함께 KYS (Know Your Supplier)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공급업체들로부터 회신받은 질의서는 회사 공급망 실사 프로그램의 책임자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보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공급업체 정보조사 (KYS)에서 위험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의 건 (2026.03.30)

- 3) 보고기간 동안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출처에 대해 공급업체 정보조사(KYS)자료, 수입선적서류(원산지증명 포함), 율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으며 확인된 원재료 원산지는 한국, 호주, 일본, 스위스등 총 4개국으로부터 원료 수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채널을 통한 원재료 출처 세탁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활용 물질(Recycled Material)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 언급된 증빙자료외에 입고증(품명확인), 입고사진, 공급업체계약서, 거래명세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위험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 위험 완화

보고서 기간 중 확인된 위험이 없으므로 위험 완화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공급망 내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실사 프로세스에 따라 이행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